

# 책으로 만난 보람

## 채규철

두밀리 자연학교 교장

안양에서 범고개를 지나 안산으로 가다보면 안양 새마을교육원이 나온다. 그곳에서 농촌운동을 하는 4H 지도자들 교육을 하기 시작한 것도 벌써 26년이 되었다. 지난해 봄에 그곳에 강의하러 갔더니 인천에 있는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2백명이나 교육을 받으러 왔다. 공교롭게 그해 여름 신동아생명그룹의 직원 연수교육을 위해 인천에 또 가게 되었다. 강의를 끝낸 뒤에 인천 연안부두 회집에서 친구들과 약주 한잔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울 오는 전철시간을 넘기게 되었다.

울며 겨자먹기로 인천에서 서울까지 택시를 탔다. 그때 나를 태운 택시기사가 깜짝 놀란다. “선생님! 웬일이십니까? 제가 지난 봄에 새마을 연수원에서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도 반가웠지만 반갑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가는 동안 그는 “그동안 나이 40이 넘도록 책이라는 것을 한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수원에서 강의를 듣고 선생님의 책은 한권 사서 밤새도록 울면서 읽었습니다. 다 읽은 다음에 아내에게 읽으라고 주었더니 아내 역시 밤잠을 거르면서 웃다가 울다가 하더니 아침 반찬이 달라잡니다” 한다.

서울집에 도착하여 택시비를 계산하자니 선생님께 무슨 택시비를 받느냐며 펄쩍 뛴다. 그래도 내가 아저씨보다는 부자니까 받으라고 요금을 주었더니 결사적으로 거절한다. 선생님을 만난 것만도 영광인데 하면서 집에 들어와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우리 국민들 중 나이 마흔이 넘도록 책이란 걸 한번도 읽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적지는 않을 것 같았다. 책 같은 것을 읽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테니까.

충남 홍성에 있는 풀무학원의 설립자이신 이찬갑 선생님(서강대 이기백 교수님의 부친)은 당시의 풀무학원 학생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했다. “책만 읽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도깨비들이고, 일만 하고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짐승들이다. 우리나라가 사람은 없고 짐승과 도깨비들만 판치는 세상이 될까 두렵다”고.

또 한가지, 책을 읽힌 인연은 대전교도소에 김현식이라는 무기수살인범이었다. 그와 나는 3년 동안 문통을 했다. 지난 9월에 느닷없는 편지가 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편지의 주소가 교도소 주소가 아닌 대전 성모병원의 주소였다. 이상하다 싶어 편지를 뜯어봤더니 교도소 안에서 대장암에 걸렸다는 것이다. 앞으로 2~3일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죽기 전에 선생님을 꼭 면회하고 싶으니 병원으로 와 줄 수 없겠느냐는 간곡한 부탁이었다.

나는 편지를 받자마자 대전 성모병원으로 그를 만나러 갔다. 김현식은 나를 보자마자 눈가에 이슬이 맺히면서 내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 저를 위해 기도나 한번 해 주세요. 선생님의 책을 읽다가 알게 된 로버트 터스트의 《생명의 선물》을 읽고 결심을 했습니다. 살인범으로 이 사회에 많은 누를 끼쳤지만 죽기 전에 이 사회를 위해 나도 보람 있는 일을 하나 하고 죽고 싶습니다. 아직 건강한 나의 눈은 맹인들에게 기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시신은 의과대학생들의 해부용으로 기증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속하여 주십시오.” 나는 그의 유언대로 했다.

김현식의 안구는 맹인 두 사람에게 이식되어 빛을 주었고, 시신은 가톨릭 의과대학 학생들의 해부용으로 사용되었다. 나는 김현식의 감동적인 편지를 모아 그를 기념하는 작은 문집을 준비하고 있다. 그것이 그와 나와 책으로 만난 보람이 될 것 같아서. ❖

특별 기획	2	민족주의적 사고에서 자유로워야 할 역사학 - 마구치 일본인 학자가 본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
초점	4	먹구름 속 서점계, 햇살 기다리며 인간됨 매출부진에 따라 인원감축, 임금동결 등 구조조정
탐방	5	테마서점 가정 전문서점 '도모'
기획 취재	6	출판계에도 새 인사전략, 연봉제 확산조짐
집중취재	7	저자와 출판사간 불공정 계약관계 불거져
표지	8	'책의 바다'에 은빛 물고기들 뛰논다
얼굴	9	(재)한국출판연구소 새 이사장에 윤청광씨
저자 초대	10	《민속문화론서설》 펴낸 민속학자 심우성씨
출판화제	11	원시성을 찾아떠나는 책과의 여행
출판가	12	판매부진, 복합마케팅으로 끌어올린다
	13	통신공간에서도 활발한 책읽기와 토론
특집 에세이	14	나와 함께 여름을 보낸 이 책 한 권 김용택/송상용/이효인/오세영/ 김진경/방민호/차미례/김지룡
소설 서평	18	최성각·한창훈·송경아의 작품집을 읽고 - 이동하
시집 서평	19	98년 상반기 주요 시집 읽기 - 신철하
연재 에세이	20	"세계 최초의 저술가는 아담" - 이광주 짧은 여름밤의 책 이야기
해외서점 탐방	24	생 제르망 데 프레의 명문서점 갈리마르 - 최연구
인터넷 출판향해	25	미국·일본의 컴퓨터서적 전문출판사 사이트 - 정옥희
서평	26	최재석 《고대한일불교관계사》 - 김경집 백낙청 《흔들리는 분단체계》 - 정해구
	27	조희연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 정영태
	28	반다나 시바 《살아남기》 - 이승환
		이동연 외 《스포츠, 어떻게 읽을 것인가》 - 기영노
	29	베텔하임 《옛이야기의 매력》 - 서정오
이 책 그 사람	30	《그림책을 보고 크는 아이들》 펴낸 이상금씨 《음악의 숲에서》 펴낸 유혜자씨
	31	《해초스님 저희 왔어요》 펴낸 노정렬씨
	32	새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다시 보는 사진집	48	☐ 구본창 《생각의 바다》